사회적공간으로서 강화유니버스

강화유니버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상호작용, 교류, 창작, 체험 등이 일어났기에 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물리적 공간과 별개로 사회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순간이나 장을 '사회적 공간'으로 설명한다. 부르디외는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사회·문화적 자본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갖는다고 하였다. 물리적 공간인 강화도는 그 사람이 지닌 사회 문화적 자본과 맺어온 관계망에 따라 여러 사회적공간이 존재한다. 강화도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한 대안적 공간으로 여기는 이주 청년들의 사회적공간과,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강화도를 답답하게 여겨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사회적공간도 있다. 원주민들의 사회적공간, 이주민들의 사회적공간, 주말농장이나 5도2촌의 생활을 하는 이들의 사회적공간,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강화도에서 살아온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공간은 모두 강화도라는 물리적 공간에 있으며 병존하며 교차한다.

평소에는 각자의 사회적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때때로 협력하거나 협상하거나 갈등을 빚을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경험이나 자본들, 역할로 인해 물리적 공간인 강화도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강화도로 이주한 시니어 지역주민A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옛 골목이 정겹게 느껴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은 불편하고 경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저는 (옛 골목이) 보존되면서 재생되는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주민)은 부수고 다시 짓기를 원하니까.. 어쨌든 다 부서지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이걸 샀어요. 주인분이 안 판다고 하다가 급하다고 팔았고 당분간은 이렇게 있겠지만. 도시재생 한다고 하긴 하는데 재개발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 신축 위주로 부수고 이런.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경우엔 이런 모습이 마을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하는데, 오래 사신 분들은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그 분들에게 돈이 되진 않잖아요. 게다가 여기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 - 지역주민 A

부르디외는 경제적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적공간의 발생과 긴장을 주로 보았는데, 시골에서는 출신(태생 여부, 원주민이냐 이주자냐)이 마치 '계급'처럼 작용하고,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하며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가 도시에 비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강화로 이주한 청년들은 안심, 존중, 다양성이 있는 강화도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강화유니버스를 통해 그러한 지향을 담은 사회적공간을 형성하여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냈다. '외지에서 이주한'

‘청년’ ‘상인’ 이라는 인구학적 특징의 집단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가치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면 시니어나 원주민, 강화 외부의 청년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가 ‘원래의, 본질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귀촌 교육에서는 귀촌인들, 특히 청년들에게 원주민들의 공간인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할 것을 강조한다. 그런 관점에서 강화유니버스처럼 이주민과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제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 않은 전략이겠지만, 장기적으로 강화도에 새롭고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공간들이 형성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강화도에 있는 청년 이주자들의 존재 드러냄과 발화 자체가 강화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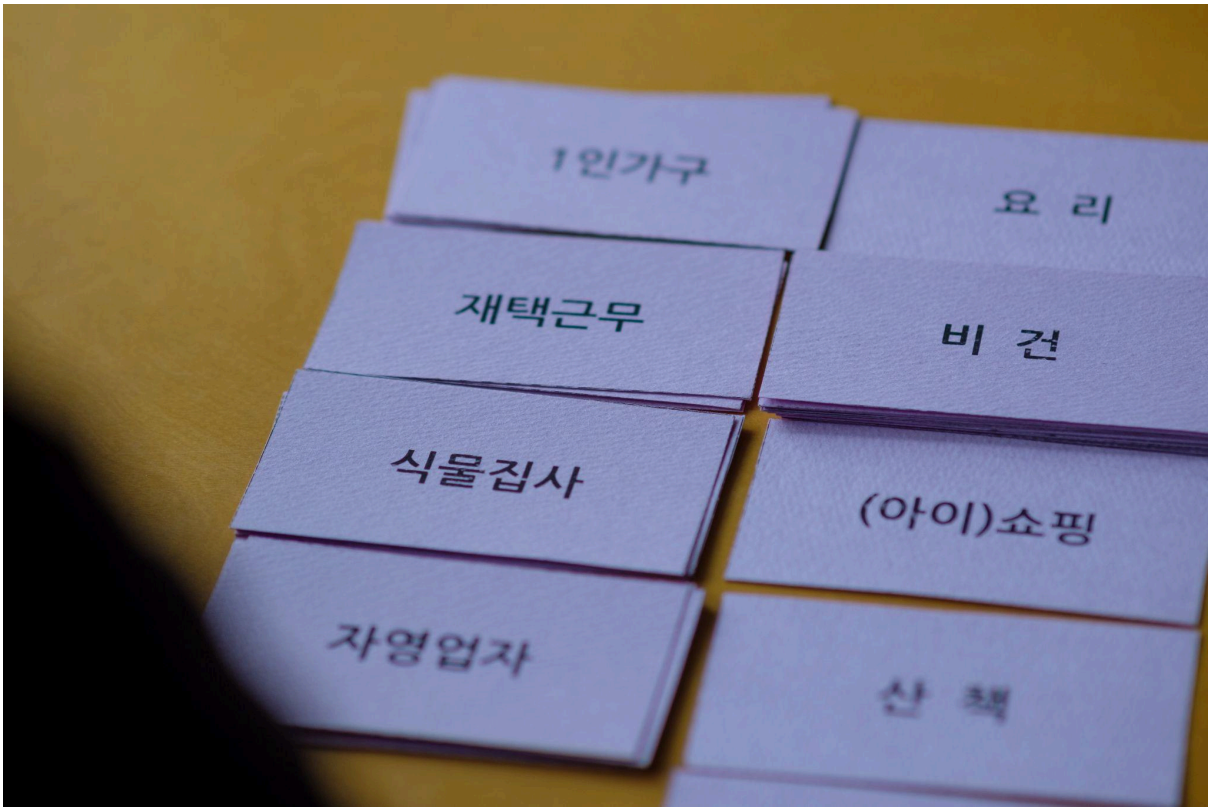


사회적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공간에서 형성된 담론과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 제도, 물질, 인프라, 담론을 형성한다. 강화유니버스가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보려는 목적으로 기획한 사업들은 아니었지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협력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을 초대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내는 일련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강화유니버스 가치관 소개, 포스터 부착, 프로그램이나 회고에서 이뤄진 외부 청년들과의 접촉과 대화, 인터뷰나 강의로 자기 삶을 발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진 성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무로 수강해야 했던 성평등 교육 참여 등은 지역 주체의 성찰과 인식변화는 '교육'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역협력자로 자기에게 맡기어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 중에 강화유니버스는 강화의 다른 사회적공간들과 접촉했다.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일에 관심사가 있었던 마을공동체와 '청년 응원기금'을 접점으로 만났는데, 같은 주제에 대해 노력하는 주체이지만, 지역에 정착하여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시니어그룹과 상대적으로 물적·사회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지역의 위계 질서에서 약자에 있는 청년그룹이 가진 정서적 차이가 존재했다. 시니어 중심의 사회적공간에 속해있던 청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하기 어려웠는데, 강화유니버스에서는 사회적공간 대 사회적공간의 동등한 교류 형태(청년이 마을에 대한 강의 형식)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

강화유니버스는 다양성과 안심의 가치관을 강조했다. 강화유니버스는 비건, 반려묘 등 소수자성과 여러 가지 취향의 영역까지 다루고 언급하는 폭을 넓혀놓았다. 비건 참여자가 강화도에서도 채식 옵션을 식당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놀랐던 일, 성소수자에 대한 지역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례 등은 강화유니버스가 지향하는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보다 다양한 이들의 삶을 포용하는 문화를 지향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요 리
재택근무
비 건
식물집사
(아이)쇼핑
자영업자
산 책